

# KMI 국제물류위클리

2017년 1월 11일 · 제 390호  
항만·물류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 
총괄 김은수 실장, 감수 김형태 선임연구위원

## Contents

### | 물류정책 · 사업동향 |

1.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GM사 멕시코 공장 설립 계획 철회
2. BMW '연결된' 물류로 지속가능 공급망 추구
3. 머스크와 알리바바, 온라인 선박 예약서비스 제공 협력
4. 러시아 교통부, 2017년 소치-크림반도 간 크루즈 운항 재개 위한 선박 구입 계획

### | 물류시장동향 |

1. DP월드, 부산산항 PNCE터미널 지분 증가
2. 오스트리아 빈 공항 항공화물 처리시설 확장





## 물류정책 · 사업동향

###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GM사 멕시코 공장 설립 계획 철회

-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거 공약 이행에 대한 우려
  - 지난 3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GM(General Motors)사가 멕시코에서 차량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 비판
  -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(NAFTA)로 인한 자국민 실업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
  - 이에 따라, 멕시코에 공장을 둔 미국지역 수출 위주 기업 경영자들의 우려 심화
- 같은 시기, Ford Motor사도 160만 달러 규모의 멕시코 조립공장 설립 계획 철회
  - 이에 앞서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29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GM사의 멕시코 공장 생산 차량이 미국 내 비과세로 수입 되는 것을 비난하며 “미국 현지 생산 또는 관세 부과”를 주장
  - 더불어,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새 정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 발표, “국내 생산 및 판매와 자국민 고용 확대”
- 지난 2016년 미 대선 시점, 오하이오주 로드스타운의 GM 조립공장 폐쇄
  - 미 대선 다음날, GM사는 오하이오 로드스타운의 조립공장을 공식적으로 폐쇄
  - 이로 인해 1,200여명 규모의 지역 내 실업 유발
  - 또한, 오하이오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지역이나 지난 대선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한 결과
- 트럼프 미 대통령 선거공약중 하나는 멕시코와의 무역이 흑자가 될 때까지 수입에 대한 높은 관세 적용할 것임
  - 멕시코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44개국과 체결하고 있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국가들의 생산·제조업체들은 이 같은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멕시코 현지 공장 설립을 활발히 추진해 왔음
  - 하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따르면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35%까지 관세 부과
- 최근 트럼프는 GM사 최고경영자에게 경제발전을 위한 기업 경영전략 및 정책 포럼을 마련하길 요청
  - 지난 12월, GM은 5억5천2백만 달러를 뉴욕주와 오하이오주 공장에 투자하기로 결정
  - 또한, 지난 3일 Ford사는 멕시코 공장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7억 달러를 미시건주 공장에 투자하기로 공식 발표

자료 : www.americanshipper.com, 2016.1.3.

박주동 전문연구원  
051-797-4660, jdpark@kmi.re.kr



## BMW ‘연결된’ 물류로 지속가능 공급망 추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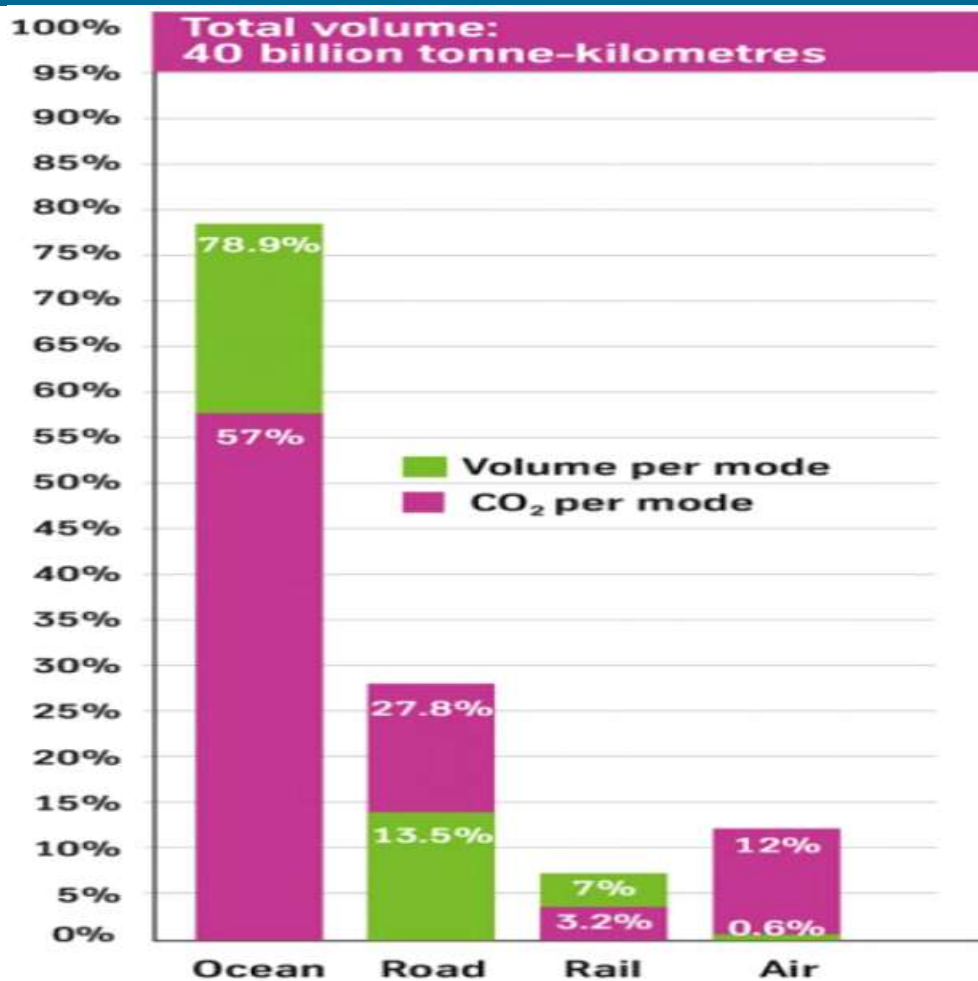
- BMW의 미래 전략인 ‘연결된 공급망’을 실현하기 위해 항공운송을 줄이고 철도운송을 늘리는 계획을 진행 중임
  - 연결된 공급망의 모든 측면이 자동화나 디지털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님
  - 환경적 지속가능성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
  - 이를 위해, 전기트럭의 이용이나 운송에서 낭비를 막기 위해 보다 투명성을 높이는 기술을 채택하고 있음
  - 이외에도 철도운송의 증가와 같은 아날로그적인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
- BMW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연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이를 측정하고 있음
  -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, 그 중에서 물류부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힘
  - 2015년 자동차 생산과 판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4년~2015년 사이에 물류부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120,000톤 줄임
  - 이러한 결과에 자극을 받아 BMW는 공급망의 투명성 증대와 스마트 운송 계획에 집중하고 있음
- BMW의 2015년 총 운송 물량은 40억 ton-km<sup>1)</sup>이었음(그림 참조)
  - 항공 운송의 비중은 0.6%에 불과하지만 물류부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%로 높은 편이었음
  - 도로 운송도 반비례 관계를 보임
  - 반면, 해상과 철도 운송은 대체적으로 운송 물량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편인 것으로 나타남
  - BMW는 항공 운송의 비중을 큰 폭으로 줄였음
  - 향후 공급망에서 투명성 증가와 자동화, 신속한 배송, 부품의 재주문 등을 통해 항공 운송의 비중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
- 부품과 완성차의 철도운송 증가는 BMW의 또 다른 목표가 되었음
  - 생산 공장과 가까운 특화된 내륙 항구를 이용하여 BMW는 화물운송을 도로에서 철도로 전환할 수 있음
  - 시베리아 관통 철로(Trans-Siberian railway)를 이용하여 부품을 독일 공장에서 중국의 선양 합작 공장으로 운송하고 있음
  - 컨테이너 운송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과 규모에서 효율적이지는 않지만 항공 운송의 유효한 대안은 될 수 있음

1) 총 운송 중량에 총 이동 거리를 곱해서 계산



- 대체 연료의 사용은 자동차 물류에서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
  - 2015년 BMW와 물류회사인 Scherm은 유럽 최초로 물류센터에서 부품을 자동차 생산 공장으로 전기로만 움직이는 트럭(40톤)으로 운송함
  - 전기트럭은 완충에 3~4시간 소요되며, 지점과 지점의 경로를 성공적으로 연결할 수 있음
  - 향후 BMW는 독일에서 전기 트럭의 이용을 확대할 것이며, 완성차 운송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

BMW의 운송물량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

자료 : [www.automotivelogistics.media](http://www.automotivelogistics.media)자료 : [www.automotivelogistics.media](http://www.automotivelogistics.media), 2016.12.22.

박창근 전문연구원  
051-797-4781, beinji2@kmi.re.kr



## 머스크와 알리바바, 온라인 선복 예약서비스 제공 협력

- 덴마크 선사 머스크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와 협력을 맺어 화주들에게 알리바바의 플랫폼을 활용한 선복예약서비스를 제공
  - 머스크선사 대변인에 따르면 동 서비스는 12월 22일부터 알리바바의 원터치사이트를 통해 중국 화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. 원터치예약서비스의 주 타겟층은 중국의 중소수출업자임
  - 기존의 원터치 이용자들은 보증금 선납을 통해 선복이용 가격을 고정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선택된 항로와 항구에서만 제공될 예정임
  - 원터치사이트에 따르면 현재는 상하이 닝보 등 8개의 중국항만에서 출발하는 유럽항로와 아시아 역내항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함
- 알리바바의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규모 판매자들은 머스크의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직접 예약이 가능
  - 화주들이 포워더를 통해 선복을 확보해왔던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상에서 직접 선복확보를 할 수 있게 된 것임
- 전자상거래업체들은 보다 나은 공급망 관리를 위해 물류서비스 부문에 점점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이며 온라인 선복 예약서비스는 이러한 트렌드의 일부
  - 아마존은 중국 지사를 포워더로 등록했으며 미국 내 배송 관리를 위해 항공기를 임대함
  - 알리바바는 최근 몇 년 동안 택배회사 지분 및 창고매입을 통해 물류서비스업에 진출하고 있음
- 머스크는 이번 온라인 선복예약서비스가 동사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 전략 중 하나이며 제3자 포털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더 도입할 계획이라고 언급
- 씨인텔(SealIntel) CEO Lars Jensen은 American Shipper와의 인터뷰에서 운송사들이 점점 예약서비스 자동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측
  - 이는 과거 운송사들이 예약 이후 발생하는 고객서비스 관련 기술에 집중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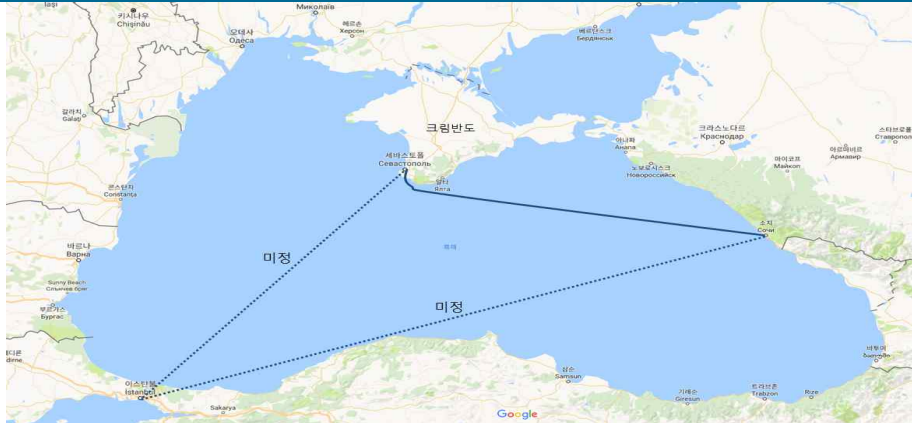
자료 : [www.reuters.com](http://www.reuters.com), 2017.1.4. / [www.americanshipper.com](http://www.americanshipper.com), 2017.1.4.

전우현 연구원  
051-797-4615, [jwh0321@kmi.re.kr](mailto:jwh0321@kmi.re.kr)



## 러시아 교통부, 2017년 소치-크림반도 간 크루즈 운항 재개 위한 선박 구입 계획

소치-크림반도-이스탄불 예상 크루즈 항로 경로



자료 : KMI 작성

- 러시아 교통부가 소치-크림반도 구간의 크루즈 운항 재개를 위해 리스 형식으로 선박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고 함
  -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2017년도부터 시작하는 소치-크림반도 간 크루즈 사업이 준비단계에 있으며 사업의 일환으로 크루즈 구매가 러교통부에 의해 계획되고 있음
  - 현재 이 구간을 운항하는 크루즈노선이 전무한건 아니지만 해당 사업 진행을 위해선 주간 4-5회 정기 운행과 1,000명 이상 승객의 수용이 가능한 선박의 구입이 필요함
  - 자원 조달을 위해 여러 은행들과의 논의 결과, '러시아 은행(Rossiia bank)'이 1,000-1,200만 달러 범위 안에서 선박 구입 자금을 융자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임
- 이 크루즈 사업은 운항 1회당 750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해야만 이익창출이 가능함
  - 러정부는 1년차 사업에는 운항 1회당 500명 정도의 승객을 이용하게 할 계획임
  - 또한 추후 추가노선으로 이스탄불까지 운항을 확대할 예정으로 현재 터키정부와 이와 관련하여 논의중임
- 다만 우려되는 사항으로 크루즈보다 저렴하고 빠른 항공노선이 이미 이 구간을 운항중 이기 때문에 크루즈사업의 이익창출이 쉽진 않을 것임
  - 하지만 이스탄불까지 운항노선이 확대된다면 이 지역을 관광하기 위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

자료 : tass.ru, 2016.12.21.

이하림 연구원  
051-797-4758, harimyi@kmi.re.kr



## 물류시장동향

### DP월드, 부산신항 PNCTerminal 지분 증가

- DP월드의 부산신항 PNC 터미널의(PNC : Pusan Newport Company Ltd) 지분이 기존 42.09%에서 66.03%로 증가했음
  - 삼성물산과 삼성생명보험 등의 지분을 매입해 최대주주의 입지를 강화했음
- PNC는 신항 5개의 부두 중 가장 큰 터미널로 525만 TEU의 처리능력과 신항 물동량의 34%를 처리함
- DP월드의 CEO 술탄 아메드 빈 술람은 동북아의 주요 관문 허브인 부산항에서 가장 큰 터미널인 PNC에 대한 지분 확대가 DP월드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

자료 : www.worldcargonews.com, 2016. 12. 29.

김주혜 연구원

051-797-4779, joohye915@kmi.re.kr

### 오스트리아 빈 공항, 항공화물 처리시설 확장

- 오스트리아 빈 공항이 항공화물 수요증가에 따라 항공화물 처리시설 확장 계획을 발표함
  - 오스트리아 공항은 이 프로젝트로 항공화물센터가 15,000평방미터 까지 확장 될 것이며, 비용은 약 1,600만 유로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함
  - 현재는 하루에 800톤가량의 화물이 처리되고 있으며, 2016년에는 트럭운송을 포함하여 대략 260,873톤의 화물이 처리되었고 이는 전년 대비 4.3%가 증가한 수치임
- 오스트리아 항공수출화물의 절반 정도가 빈 공항을 통해서 수출됨
  - 항공화물처리시설의 확장은 오스트리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물류분야에서의 새로운 직업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임
  - 앞으로 수년 간 항공화물처리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

자료 : www.aircargonews.net, 2016. 1. 6.

강선미 연구원

051-797-4776, sunmikang@kmi.re.kr